광주시, 블랙아이스 취약 구간 집중 관리… 사고 예방 '총력'

관내 도로 제설대책·장비·제설함 관리 집중 점검

"운전자 안전운행 수칙 준수 무엇보다 중요" 당부

광주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종합건설본부, 자치구 등과 함께 관내 도로를 대상으로 겨울철 도로제설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2019년 11월15일~2020년 3월15일)'의 일환으로 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제설대책 수립의 적정성, 취약구간 제설대책, 제설장비·자재 관리, 제설함 관리 등으로 이뤄졌다.

점검에서 일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각 도로관리청별 도로제설 경계구간 협조체계 구축,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 등 보완점을 개선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도로 위 정승사자'로 불리는 상습결빙(블랙아이스)구간은 기존에 지정한 38곳에서 결빙사고 다발지점 16곳을 추가해 총 54곳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결빙 취약시간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블랙아이스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미끄럼 사고예방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7곳) 운영과 제설함 93개를 배치 완료했고, 네비게이션 운영사와 협력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주의와 경고를 할 수 있는 음성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블랙아이스(상습결빙)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 142개, 현수막 46개, VMS 전광판 16곳을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임남진 시 도로과장은 "안전한 겨울철 도로 이용환경을 만드는데 힘 쓰겠다"며 "운전자분들의 안전운행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운행에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운영과 함께,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체계적 제설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양향자,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창원·울산과 경쟁해 이기는 광주 만들고 싶다" 포부 밝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개최한 출판기념회에 정치인, 기관단체장, 주민 등 5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이형석 최고위원, 최재성 전략기획자문위원장, 이개호 전 농식품부장관, 서삼석 국회의원,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등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구충곤 화순군수,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최영호 동남갑 예비후보, 이용빈 광산갑 예비후보, 이남재 서구을 예비후보, 전진숙 북구을 예비후보도 행사장을 찾아와 자리를 빛냈다.

지방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장재성 광주시의회 부의장, 송형일 시의원, 황현택 시의원, 정순애 시의원, 이홍일 시의원, 반재신 시의원, 최영환 시의원,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 김영선 구의원, 윤정민 구의원, 박영숙 구의원, 오광교 구의원, 전승일 구의원, 강인택 구의원, 전미용 구의원, 전주언 전 서구청장, 임우진 전 서구청장, 정병문 전 시의원 등이 출판기념회에 함께했다.

경제인도 다수 참석했다. 공후식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모아건설 박윤하 부회장, 기재만 임곡농협조합장, 양용호 금성농협조합장, 김명렬 서창농협조합장, 최승곤 남양 STN회장, 최영자 벽상해운 회장, 이정원 홈네트홈 대표, 한상원 다스코 회장, 최갑렬 삼일건설 대표 등이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단체 임원도 행사장을 찾아 출판을 축하했다. 이승현 화정3동 주민자치위원장, 정태성 화정3동 바르게살기위원장, 박춘복 화정3동 보장협의체위원장, 안해옥 화정4동 주민자치위원장, 심혜경 화정4동 자율방범대장, 권재환 풍암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황경희 풍암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인춘 광주장애인 총연합회 회장, 서용규 광주 장애인 체육회 상임부회장, 김성중 광주 서구 장애인협회 회장, 정진삼 광주 장애인문화협회 회장, 박종필 광주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최홍규 광주 사랑복지회 회장, 정무중 광주광역시 해병전우회 회장, 최형구 해병전우회 서구 회장, 박용구 곰두리 회장, 박동선 대한 어머니 서구 지회, 이권희 서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김종각 광산구 의사회장, 이인춘 장애인 총연맹 회장, 김찬용 광주시연합 대표, 양호철 민주평통 서구 자문위원장, 이정순 서구부인회 회장, 구병진 실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명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전지연 부패방지국민운동 광주총연합 회장 등이다.

이밖에도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 김병우 호남일보 사장 등 언론계와 윤병주 국가인재원 교수, 노용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영태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윤세 호남직업전문학교 이사장 등 교육계 인사와 오찬교 유은학원 총동문회장, 권희석 유은학원 재경동문회장, 장선희 광주여상 동문회장, 송태종 광주일고 총동창회장 등 동문도 참석하여 축하했다.

이해찬·이인영 대표 등 국회의원 20명, 시도지사 9명 영상축사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해영 최고위원, 남인순 최고위원, 이수진 최고위원,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홍영표 전 원내대표, 우원식 전 원내대표, 우상호 전 원내대표 등의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를 보내와 행사를 함께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개최한 출판기념회에 정치인, 기관단체장, 주민 등 5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밖에도 이용섭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시도지사 9명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또한 김부겸, 김상희, 박범계, 서영교, 전해철, 전현희, 한정애 국회의원과 김현 민주당 사무부총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서대석 서구청장,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도 영상 축사를 보내 국회의원 20명 등 총 35명이 영상으로 축하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송영길, 홍영표, 김영춘, 김정호 의원과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9명은 축전을 보냈다.

"광주의 경제시계 다시 돌려, 창원·울산 등과 경쟁해 이기고 싶다" 양 전 최고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양향자는 이기고 싶다"며 "사람을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경남 창원과 경쟁해 이기고 싶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조만간 생산할 울산과 경쟁해 이기고 싶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어 양 전 최고위원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도전하는 충북과, 데이터 산업 유치에 팔 걷고 나선 강원도와 경쟁해 이기고 싶다"며 "저에게는 광주의 아들딸들이 외지가 아닌 광주에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는 광주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가꿔온 청년이라면 일자리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도시 광주, 재능있는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는 도시 광주를 만들고 싶다"며 "AI 창업 기업이 1조 원대 매출로 유니콘 기업이 되는 광주를 만들고 싶다"고 하여 관객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FC, 5월부터 축구전용구장서 뛴다

조성공사 4월까지 마무리…12월, 지붕 추가 설치해 편의 제공

광주시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의 홈구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축구전용구장 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부터 새로운 구장에서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64억원을 투입해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 경기운영실과 선수숙소 17실, 관람석 7000석 등을 갖춘 축구전용구장 조성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2020년 개막경기부터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1부 리그로 승격되면서, 광주시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관람석 1만석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추가로 3000석 설치를 추진해왔다. 광주시는 축구장의 핵심시설인 경기운영실의 관리본부동과 선수숙소 등 경기시설과 관람석 7000석은 2월까지 완공하고 추가로 설치하기로 한 3000석은 계

광주축구전용운동장 조감도. /광주시 제공

약발주 등을 신속히 추진해 대한프로축구연맹의 전용구장 인증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더불어 2020시즌 광주시민프로축구단 홈경기를 기존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도록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협의할 방침이다.

또 관람석 지붕시설이 없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재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관람석 지붕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관람석 지붕시설은 시즌 종료 후 휴식기에 들어가는 12월부터 2021년2월까지 설치해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규진 기자

전남도,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는 전라남도와 시군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진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설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선물세트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농어·돔류· 소금 등 품목, 참돔·가리비·홍어·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사례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규진 기자